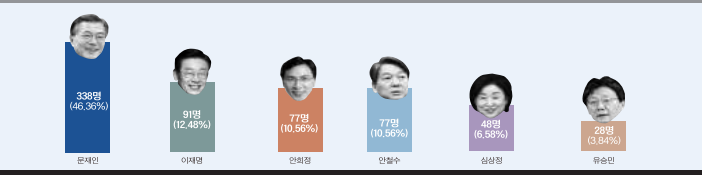


## 6» 대학생, 대선 예비후보에게 묻다



## 8» 탄핵 및 대선 예비후보 인식도 조사



## 2017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안내

대상자 : 서울·국제 캠퍼스 재학생  
※휴학생, 수료자, 졸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기간 : 2017년 3월 16일(목) ~ 22일(수) 18:00  
학점포기 가능학점 :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어느새 3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다. 양 캠퍼스는 봄 기운과 함께 찾아온 '선거 시기'에 분주하다. 서울캠퍼스는 '열·일' 선본의 권예하(언론정보학 2010) 정후보(왼쪽)가, 국제캠퍼스는 '우리가 함께' 선본의 유매연(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3) 정후보와 '디딤돌' 선본의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정후보(오른쪽)와 경선을 벌일 예정이다.

# 최근 4년 양 캠퍼스 공통 공약, '등록금' · '학사제도'

## 총학 공약 추이 분석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최근 4년간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 핵심공약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등록금 협상'과 '학사제도 개편'을 공통적으로 주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제도 개편의 경우 지난 총학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은 이행되지 못했다. 49대 총학 후보자 역시 유사한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번 총학

후보자들이 이전 총학들과의 차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다. 등록금 관련 공약은 지난 2013학년도 국제캠퍼스(국제캠) 45대 총학 'POWER DREAM', 46대 총학 'KHU-KEY'가 등록금 인하를, 47대 총학 '친KHU'가 등록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걸어 주장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44대 총학 'KHreator'의 '반값등록금 공약'과, 46대 총학 '경희의 조건'은 공약이 아니었지만 인터뷰를 통해 등록금 인하에 힘쓰겠다고 주장했다. 2015학년도 국제캠 47대 총학 '친

KHU'의 등록금 동결 공약을 기점으로 등록금 인하 주장은 사그라졌다. 이후에는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거쳐 진행되는 등록금 협상의 시기가 중요해졌다. 특히 양 캠퍼스 총학회장이나 부재한 현재, 등록금 협상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상적으로 대표자가 선출되고 총학이 구성됐다면 49대 총학생회가 등록금 협상의 주체가 됐겠지만 이전 학생회는 여전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업무와 함께 비대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등록금 협상은 3월을 넘긴 지금까지도 가책정 상태에 머물러 있다. 등록금이 동결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인하될 경우 가책정에 따라 납부한 금액과 인하된 금액의 차액만큼 환불조치를 진행하게 돼,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게다가 등책위가 3월이 지나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장학팀은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49대 총학이 등록금 협상을 시급히 진행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학사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다양한 공약이 존재했다. 국제캠 47대 총학 '친KHU'는 수강신청개선을,

48대 총학 'KHU&KHU'는 형식적인 강의평가 개편을 주장했다. 서울캠 45대 총학 '당신곁에'가 성적 평가제도 개편을 통한 완전한 절대평가 도입을, 서울캠 47대 총학 '오늘의 경희'는 대형강의 축소, 서울캠 48대 총학 '취향저격'은 팀플 수업의 절대평가제도 도입과 중간점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중간점검제도는 팀플 과제에서 조원의 기여도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다. 해당 공약의 이행률을 살펴보면, 서울캠 47대 총학 '오늘의 경희'가 내건 '대형강의 축소' 공약에 따라

기존 38개였던 대형 강의가 5개로 줄어든 것과, 국제캠 47대 총학 '친KHU'의 '수강신청개편 공약' 이후 생긴 예비과목담기가 유일했다. 그마저도 수강신청 대란은 반복됐다. 결국 이번 국제캠 49대 총학 '디딤돌' 선본은 새로운 수강신청제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캠 '열·일' 선본과, 국제캠 '우리가 함께', '디딤돌' 선본 모두 학사제도 개편 관련 공약을 제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4-5면

# 종합만족도 57점 ... 학사행정·취업지원 만족도 저조

## 미정원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2016 경희대학교 학부 내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리학교에 대한 학부생의 종합만족도가 5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정책원(미정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양 캠퍼스 2학년 이상 재학생 2,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캠퍼스별 종합만족도는 서울캠퍼스(서울캠)가 58점, 국제캠퍼스(국제캠)가 56점이었다. 계열별 종합만족도 결과를 살펴

보면 의학계열이 62점으로 상대적으로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계열과 예체능계열은 54점으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자연·공학계열은 60점이었다. ▲교과과정 내용 ▲교과과정 운영 ▲휴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 ▲학사 행정 ▲전공 평판 ▲취업 지원 등 7개 항목별 만족도 점수에서는 교수진에 대한 평가가 64점으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 '전문성 높은 강의 실시(67.3점)'와 '성실한 자세(67.6점)'를 높게 평가했다. 반면 '적극적인 진로 상담

(56점)'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관련해 학생들은 교수진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1,2,3순위로 꼽았는데, 순위 합산 결과 '기존의 학문 분야에만 치중'하는 문제를 32.9%가 우선적으로 바뀌어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 주요한 사항으로 꼽은 '통섭'에 대한 노력도 더 커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부족(31.0%)', '진로상담 부족(30.0%)'을 개선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사행정 부분의 경우 만족도가 50점으로 전체 부문 중 가장 낮았다. 세부적으로 '전공차원의 취업지원 노력(45.3점)'과 '전공 관련 부족사항 개선 노력(46.2점)', '행정직원 전문성 보유(47.9점)', '학사행정에 대한 친절한 안내(49.5점)' 등 세부항목 6개 중 4개가 50점도 넘지 못했다. 이런 행정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은 우리학교 대나무숲과 에브리타임 등의 학내 커뮤니티들에서도 자주 제기된 문제다.

▶3면으로 이어짐

##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카카오톡 플러스 ID : 경희대 학내신문 대학주보

## 전문가 칼럼

민주주의 모범사례 남긴 국민의 힘  
임성호(정치외교학) 교수 >> 7면



## 대학주보 66기 수습기자모집

모집대상 : 1, 2학년  
모집일정 : 3월 7일부터 24일까지  
접수방법 : 대학주보 홈페이지(media.khu.ac.kr/khunews) 참조